

8년만에...전남, K리그1 승격 향한 ‘마지막 불꽃’



8일 K리그2 39R 인천과 광양서 격돌
남은 두 경기 모두 이겨야 PO행 ‘희망’

승격을 향한 절박한 승부가 K리그2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군다.

K리그2는 오는 23일 오후 2시 동시에 진행되는 39라운드 경기를 끝으로 순위 싸움을 마무리하게 된다. 두 경기만 남겨둔 각 팀은 ‘한 자리’를 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유나이티드가 조기 우승을 하면서 K리그1 승격을 확정했다. 수원삼성도 2위를 확정하면서 K리그1 11위팀과 대결할 수 있는 승강플레이오프 티켓을 거머쥐었다.

승격을 위해 남은 경주의 수는 플레이오프 승리다. 플레이오프 승자가 돼야 K리그1 10위 팀과 경쟁할 수 있는 승강플레이오프를 치를 수 있다.

산술적으로는 3위 부천FC1995(승점 63)부터 8위 김포FC(승점 54)까지 승격에 도전할 수 있다.

K리그2 4위와 5위가 준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이 경기의 승자는 3위팀과 플레이오프 대결을 하게 된다. 플레이오프 승자는 승강플레이오프 자격을 얻는다.

3위 부천은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다.

4위 전남드래곤즈(승점 59), 5위 서울이랜드(승점 59)에 승점 4점 차로 앞서있다. 부천은 남은 2경기에서 1승을 기록하면 자력으로 3위를 확정한다.

부천이 남은 경기를 모두 지더라도 전남이나 서울이랜드가 각각 최소 1승 1무 이상을 해야 승점이 같아지는 만큼 부천은 유리한 고지에서 남은 경기를 준비한다.

전남은 서울이랜드와 승점이 같지만 올 시즌 4골을 더 넣으면서 득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우승과 2위라는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전남에 3위 가능성은 남아있다.

1승 1무를 기록해도 3위 경주의 수는 있지만, 전

남은 일단 두 경기를 모두 이기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각오다.

전남은 8일 오후 2시 이미 우승 삼페인을 터트린 인천을 상대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대결한다. 홈에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이기도 한 만큼 전남은 ‘무조건 승리’를 목표로 주말을 기다리고 있다.

승점이 같은 서울이랜드의 결과도 관심사다.

서울이랜드도 최소 1승 1무, 이상적으로는 2승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노선인 5위 수성이 우선과제인 만큼 서울이랜드도 물러설 곳이 없다.

6위 성남(승점 58점)은 앞선 전남전에서 2-0 승리를 기록하면서 플레이오프 희망을 살렸다.

4·5위와는 승점 1점 차. 성남이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하고, 부천이 연패로 시즌을 마무리할 경우 최대 3위까지도 가능하다.

일단 성남은 현실적으로 최소 5위 확보를 목표로 남은 두 경기를 치러야 한다.

전남·서울이랜드 모두 2승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성남은 2승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룰 수 있다. 반면 1승 1무를 하게 될 경우, 전남이나 서울이랜드가 1무 1패, 또는 2무를 해야 5위를 지킬 수 있다. 전남과 서울이랜드가 승리할 경우, 득점 차이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도전이 된다.

7위 부산아이파크(승점 55점)와 8위 김포FC는(승점 54점) 실낱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다.

부산과 김포는 일단 자력으로 준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경기를 이기고 다른 팀의 상황을 봐야 한다. 부산은 충남아산에 이어 플레이오프 경쟁 중인 성남과 대결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길이 기다리고 있다.

김포도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해 승점 60점을 만든 뒤 위에 있는 팀들의 패배를 기대해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2 전남드래곤즈와 성남FC의 경기에서 전남 구현준이 성남 이정빈과 볼을 다투고 있다.

<전남드래곤즈 제공>

잔류 확정 광주FC ‘고춧가루’ 뿌리나

내일 K리그1 36라운드 대구 원정서 3연승 도전



조기 잔류를 확정된 광주FC가 칼자루를 쥐고 대구로 간다.

광주는 8일 오후 2시 대구 iM뱅크PARK에서 하나는 행 K리그1 2025 36라운드 대구FC와의 원정경기를 치른다. 광주의 3연승 도전 경기이자 대구의 운명이 걸린 승부이기도 하다.

광주는 지난 2일 제주SK FC와의 홈경기에서 신창무와 프리드손스의 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이날 최하위 대구가 수원FC와 1-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광주는 남은 3경기 결과에 상관 없이 잔류를 확정했다. 대구는 세징야의 극장골로 극적으로 잔류 불씨를 살려냈다.

‘잔류’라는 1차 목표는 이뤘지만, 광주는 고삐를 늦출 수 없다. 광주에는 ‘코리아컵 우승’이라는 또 다른 목표가 남아있다.

파이널B그룹에 있는 광주가 우승을 차지하면 우승컵과 함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2(ACL2) 출전권을 얻게 된다.

올 시즌 압도적인 질주로 리그 우승을 차지한 전북현대를 상대해야 하는 광주는 기세로 난적을 꺾겠다는 계획이다. 그만큼 정규리그 남은 3경기에서 승리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분위기는 최상이다. 앞선 제주와의 경기에서 전반전 상대 공세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계획한 대로 뒷심 싸움을 펼쳐 기분 좋은 승리를 만들었다.

김경민의 활약 속에 실점을 기록하지 않은 깔끔한 무실점 승리였다.

여기에 프리드손스의 득점포 가동도 반갑다. 프리드손스는 시즌 7번째 경기였던 앞선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기다렸던 데뷔골을 터트리고 환호했다.

광주는 매서운 창과 2라운드 연속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린 김경민을 중심으로 한 든든한 방패로 승리를 노린다.

분위기는 좋지만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

광주는 지난 10월 4일 홈에서 펼쳐진 대구와의 맞대결에서 세징야의 멀티골 활약에 막혀 2-3패를 기록했다. 간발의 차이로 파이널A를 놓친 것을 생각하면 아쉬운 패배였다.

여기에 대구는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기 위해 총력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대구의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는 만큼 K리그 팬들의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광주가 3연승을 이끄는 코리아컵 우승을 향한 여정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



북한, 여자 U-17 월드컵 2연패 보인다

4강서 ‘디펜딩 챔프’ 브라질 2-0 완파...9일 네덜란드와 결승

북한이 2025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U-17세 이하(U-17) 월드컵 2연패를 눈앞에 뒀다.

<사진>

북한은 6일(한국시간) 모로코 라바트의 라바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4강에서 브라질을 2-0으로 완파했다.

북한은 이 대회 최대 우승급(3회)이며 직전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디펜딩 챔피언이다.

2연패에 도전하는 북한은 오는 9일 오전 4시 멕시코를 꺾은 네덜란드와 트로피를 다툰다.

북한이 앞서 조별리그 3차전에서 네덜란드를 5-0으로 대파한 만큼 북한의 우승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 박래영이 전반 38분 페널티 지역에서 왼발 슈팅을 날리자 브라질 수비수 안드레이나가 몸을 날리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골로 예상되는 공을 팔로 쳐냈다.

안드레이나는 즉시 퇴장당하고, 북한이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유정향이 깔끔하게 차 넣어 북한이 앞서 나갔다.

수적 우위에 선 북한은 후반 7분 오른쪽 측면에서 김수림이 올린 크로스를 유정향이 문전에서 가슴으로 트래핑한 뒤 오른발로 골대 구석에 차 넣어 승패를 결정지었다.

멀티골로 대회 8번째 득점포를 신고한 유정향은 득점왕을 예약했다. /연합뉴스

홍명보호 합류 앞둔 엄지성, 시즌 첫 골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에서 활약하는 잉어 엄지성(23·스완지 시티)이 국가대표팀 합류를 앞두고 시즌 첫 골을 터트렸다.

엄지성은 6일 영국 프레스턴의 데피일 경기장에서 열린 2025-2026 잉글랜드 챔피언십 14라운드 프레스턴 노스 엔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교체 투입된 뒤 4분 만인 후반 35분 득점포를 가동했다.

팀은 비록 1-2로 패했지만, 엄지성은 올 시즌 공식전 16경기 만에 첫 골 맛을 봤다.

앞서 엄지성은 정규리그 12경기에서 1도움, 리

그컵(카라바오컵) 3경기에서 1도움을 기록 중이었다.

엄지성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뒤 팀이 0-2로 끌려가던 후반 31분 곤살루 프랑코와 교체로 투입됐다.

그리고는 4분 뒤 왼쪽에서 공을 받아 안쪽으로 파고든 뒤 오른발로 낮게 감아 차 골문 구석에 꽂았다.

엄지성은 오는 14일 볼리비아(대전)에 이어 18일 가나(서울)와 친선 경기를 치르는 국가대표팀에 발탁됐다.

엄지성은 올 시즌 무득점에도 홍명보 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아 지난달 14일 파라과이와의 친선 경기에서 A매치 2호 골을 기록했다.

이후 기본 종계 소속팀에 복귀한 그는 지난달 25일 노리치시티전(2-1 승)에서 결승 골을 배달해 올 시즌 리그 첫 도움을 기록하더니 이날 드디어 첫 골을 뽑았다.

스완지는 이날 패배로 승점 17에 머무르며 리그 24개 팀 중 17위에 처졌다.

한편, 8개월 만에 다시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아 이달 A매치 2연전에 나서게 된 공격수 양민혁(포츠머스)은 렉섬과 챔피언십 홈 경기에서 교체 선수 명단에 들었으나 끝내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포츠머스는 0-0으로 비겼다. /연합뉴스